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위안화 문제,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상정 불투명

- 미국정부는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(이하 G20 정상회의)에서 중국 위안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중국과 의장국인 한국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짐.
 -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당 위안화 상승 속도가 매우 느려(6월 이후 약 1.8% 상승)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,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위안화 절상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힘.
 - 당사국인 중국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으려는 미국 재무장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중간선거(11월 2일)를 앞두고 의회의 불만에 대처하려는 오바마정부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임.
 - 또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정국가의 환율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- 유로존 및 브릭스(BRICs) 국가들도 중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을 내세워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위안화 문제를 상장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 - 유로존 통화당국의 한 관계자는 위안화 문제가 G20 정상회의에서 거론될 것은 분명하지만, 중국정부가 환율정책에 관한 한 장기간 중요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취했다는 것이 유럽국가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주요 의제 채택은 힘들 것으로 전망함.
 - 브라질을 비롯한 러시아, 인도 등 중국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도 특정국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논리로 위안화 문제의 주요 의제 상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
(로이터, 9/27)